극지정책 주간브리핑

미래전략실 No. 2017-16

중국, 중동으로 영향력 넓히며 사우디와 200억 달러 펀드 조성

- 사우디가 펀드의 일부를 중국 화폐인 위안화로 조성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쳐, 미국 달러에 맞서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키우려고 하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 기대

- '17년 8월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칼리드 알팔리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산업광물부 장관은 전날 제다에서 열린 '사우다-중국 경제포럼'에 참석해 중국과 200억 달러(약 22조원) 규모의 대규모 펀드 조성 계획 발표
- 본 펀드는 인프라, 에너지, 광산업, 원자재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될 것으로 밝혔으며, 양국이 200억 달러 가치가 있는 11가지 사업계약을 이번 주 내 체결할 예정이라고 발표
- 앞서, '17년 3월 양국은 에너지에서 우주기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650억 달러(약 71조원) 규모의 사업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 이번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핵심 지역인 중동지역으로의 경제적 진출에 중국이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이미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교역국이기도 하며, 2016년 양국 무역액은 423억 달러 (약 47조원)에 달함

그림 1. 중국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레드라인: 육상로드, 블루라인: 해상로드)
(자료: 중국 언론 종합)

자료 1: 연합뉴스 ('17.08.25.)

캐나다, 쇄빙선 기능 갖춘 해군 함선 건조

- 35년의 계약기간동안 캐나다 내 최대 2000개의 직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
- 북극의 경제적 중요성 증대로 캐나다를 비롯한 군사적 긴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

- '17년 8월 17일, 캐나다 정부는 8억 달러(약 9천억원) 규모의 쇄빙선 기능을 갖춘 캐나다 해군 함선 건조 계약
- 새로 건조될 함선은 북극 및 연안 경비함으로 총 6척을 건조할 계획이며, 2018년부터 8년에 걸쳐 모두 완공될 예정
- 건조될 해군 함선은 연료와 탄약 등 캐나다 배치군의 유지 및 의료 기지 역할을 할 예정
- 본 계약은 최대 35년 동안 수리, 유지 및 운영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하여, 선박의 수명기간동안 약 52억 달러(약 5조8천억원) 가치에 달하는 서비스를 포함함

자료 2 : Nunatsiaq News ('17.08.23.)

미래전략실 No. 2017-16

세계 최초의 한국산 쇄빙 LNG선, 22일만에 북극항로 통과해 세계 신기록 달성

- 본 항해를 통해 북극항로 이용이 이집트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는 기존 항해에 비해 30%나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보여 북극항로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
- 이전에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북극항로를 항해할 수 있는 기간이었지만 본 쇄빙LNG선은 1년 내내 북극항로를 이용 가능해 러시아 에너지 사업이 탄력 받게 될 것으로 전망

- 한국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세계 최초의 러시아 쇄빙LNG선, 크리스토프 드 마르주리 (Christophe de Margerie)가 세계 최초로 쇄빙기의 에스코트 없이 북극항로를 항해하여 노르웨이의 스노히트(Snøhvit) 유전에서 한국의 충남 보령까지 22일 만에 LNG 수송 완료
- '17년 7월 27일, 러시아 국영해운사 소브콤플로트(Sovcomflot)의 크리스토프 드 마르주리 쇄빙LNG선은 노르웨이 국영석유회사 스타토일(Statoil)의 멜코야(Melkøya) 가스 터미널을 출발해 6.5일 만에 북극항로를 통과하는 신기록을 세우며 '17년 8월 18일,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발표
- 본 쇄빙LNG선은 약 2.1m 두께의 얼음을 깨며 항해가 가능하며, 1년 내내 북극항로 통과가 가능한 최초의 ARC7급 쇄빙선 기능을 갖춘 쇄빙LNG운반선임
- 크리스토프 드 마르주리 쇄빙LNG선은 2014년 한국 대우조선해양이 러시아로부터 수주한 총 15척 중 하나이며 모두 48억달러(약 5조4천억원)에 계약되었으며, 본 쇄빙LNG선을 포함해 추후 러시아 야말 LNG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

KOPRI 극지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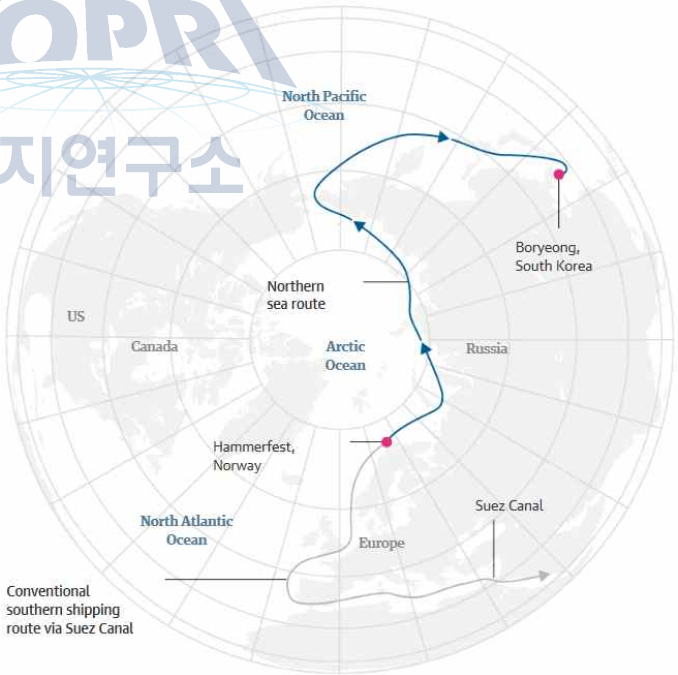

그림 2. 크리스토프 드 마르주리 쇄빙LNG선 북극항로 루트

자료 3 : The Guardian ('17.08.24.)